

<젊음의 힘>

전 국민이 촛불을 들고 국가의 부정부패에 대항했던 2016년의 겨울에, 나는 18살이었다. 대입과 진로에 대한 고민만으로도 꽤 골머리를 앓았던 내겐, 부패한 정치와 분노한 국민들의 시위는 잠깐 뒷전이였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였던지라 당시 정권과 관련된 대학 부정, 특례입학에는 나 역시 큰 관심을 가졌었다. 평범한 학생들은 대입의 문턱에서 수도 없이 좌절하고 실망하며 학교에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입시에 시달렸다. 그러나 누군가는 부모의 권력으로 쉽게 대학에 붙고, 학업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분했다. 그러한 현실을 깨달은 많은 학생들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촛불을 들고 잠들어있던 정의를 깨워,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한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청렴한 사회를 위한 첫 단추였다.

지금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대학생이 되었고, 청렴 수기와 사연을 읽으면서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 볼 수 있었다. 부모의 손에서 독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내게 군대, 법무부, 각종 단체와 관련된 어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낯설고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고 있을 부정에 저항하는 그들의 모습에, 진심을 담은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다.

청렴 수기 중, 대대장이 사적으로 부대의 간식을 불법 반출하는 것에 저항한 대위의 이야기를 보며 떠오른 말이 있었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다. 거문고를 만들어야 하니 관아의 오동나무를 베어오라는 높으신 분의 명령에도 단호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부대의 간식은 일부 군 간부들의 권력 남용 수단이 아닌, 나라를 지키는 배고픈 군인들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 마치 관아의 오동나무처럼 말이다. 글쓴이는 대대장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다. 또한 그는 소신발언을 통해 부대의 분위기까지 청렴하게 바꾸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나는 더 이상, 잘못을 지적당한 것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반기라고 생각하는

상관들이 없길 바란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나이와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가 만연하다. 자신보다 어린 부하직원의 바른말을 '예의 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계속 묵인하다 보면, 부정부패와 잘못된 행위에 대한 문제점조차도 짚고 넘어갈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우리에게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 청렴수기의 주인공들이 오래된 친구나 빠른 승진의 길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말이다.

'청렴에 다음은 없다'며 냉정하게 대응하는 보호관찰관이나,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오셨던 아버지, 물질적인 회유 없이도 당당하게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학생 등. 사연 속 주인공 모두는, 아직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많은 글 중에서 <양심 방역>을 읽은 후에는 내 생활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자신에게 할당된 만큼의 일을 묵묵히 끝내고, 돈의 유혹을 뿌리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깊었다.

학창시절에는 누구나 자신 몫의 전담 청소 구역이 존재한다. 그로인해 누가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는 아이들과, 대충 정리한 후에 하교 준비를 하는 아이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양심 방역>을 읽은 후에 생각해 보니 나는 항상 후자였었다.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써가면서 깨끗이 청소하는 친구들을 순진한 바보 취급했다. 나는 '청렴'이 뇌물을 받지 않거나 불법청탁을 하지 않는 등 일상생활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기에서도 나오듯이, 자신의 일을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해내는 것 역시 '청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내 양심을 저버린 것이었다. 청렴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청탁 금지법 하나가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을 만들어 줬다는 택시기사의 사연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연말 접대와 각종 회식 관습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보고 밥을 먹을 시간이 생긴다는 것. 고된 야근과 회식, 접대에 치여 퇴근도 눈치보고 해야 하는 사회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것은 청렴을 떠나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돈을 조금 덜 벌게 되면 어떤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된 한 끼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말이다.

전설적인 록그룹 너바나의 멤버였던 커트 코베인은,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물론 나는 기성세대들이 수도 없이 겪었을 뇌물, 촌지가 당연시 여겨지던 삶을 살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젊은이들이었던 기성세대들의 저항과, 부패한 관습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들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젊은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고 썩은 관습들을 타파하는 등 참 많은 일들을 앞장서서 해왔다. 그들이 닦아온 지름길이 있었기에 그 젊은이들의 아들과 딸은 조금이나마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연을 담은 글들을 읽으면서 나는 다시금 2016년의 겨울로 되돌아 갈 수 있었다. 그 때 그 순간의 나는, 내 앞에 놓인 소소한 걱정거리 때문에 온 국민이 마음 합쳐 들었던 촛불에 무신경했었다. 나는 부패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젊음'을 가지고서도 그 의무를 회피해버렸다. 지금 생각 해 보니 참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해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스스로 타협했던 과거의 나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을까.

지금에서야 마음으로 촛불을 들어 본다. 어찌면 그 촛불은, 역사 속 젊은이들의 함성 소리를 넘어서 더 청렴하고 진실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등불이 될 지도 모른다.